

# 치유·힐링 웰니스 축제 본격 준비 산불 예방·자연순환 효과 기대

## ‘진안홍삼축제’ 9월 18~20일 마이산 북부 일원서 개최

대한민국 유일의 홍삼 테마 축제인 ‘진안홍삼축제’가 오는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마이산 북부 일원에서 개최된다.

진안군은 지난 20일 축제 추진을 위한 1차 총회를 열고 2026 진안홍삼축제의 일정과 기본 방향을 확정하며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국내 유일 홍삼 특구의 고장 진안에서 열리는 ‘진안홍삼축제’는 전북특별자치도 최우수 축제로 선정됐으며 해마다 차별화된 건강·체험 콘텐츠를 선보이며 명성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천혜의 자연환경을 품은 마이산을 배경으로 ‘치유와 힐링’을 핵심 가치로 내세운 웰니스 관광형 축제로 한층 도약하기 위한 구상도 한층이다. 홍삼의 건강 이미지와 자연 속 휴식을 결합해 방문객이 몸과 마음을 재충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진안군 기관사회단체장과 문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9명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는 이날 위원 위촉과 임원 선출을 마치고, 축제 운영 방향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추진위원회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



진안군은 지난 20일 진안홍삼축제 추진을 위한 1차 총회를 열고 2026 진안홍삼축제의 일정과 기본 방향을 확정하며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년간 축제의 기획, 홍보 등을 맡아 전문성과 지속성을 높이는 데 중추적 역할을 맡게 된다.

또한 비슷한 시기인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대회’도 진안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선수단과 가족, 방문객이 대거 진안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역 상권 활성화와 관광객 체류 시간 확대 등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우덕희, 정복수 홍삼축제 공동위원장은 “2026~2027 진안 방문의 해를 맞아 진안홍삼축제가 지역경제 선순환과 관광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춘성 군수는 “진안홍삼축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강·힐링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함께 하겠다”며 “군민과 함께 만드는 성공적인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진안을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군수 될 것”

### 한수용 마금성 포럼 이사장, 민주당 소속 진안군수 출마 선언

민주당 한수용(62. 마금성 포럼 이사장) 출마에 정자가 23일 오전 11시 진안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안군수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한 출마예정자는 이날 출마 선언문에서 “진안은 더 이상 기존 행정 방식만으로는 미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방행정은 유지 관리의 영역을 넘어 전략과 책임, 혁신을 기

반으로 한 ‘지역경쟁’의 관점에서 운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진안을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경영의 대상으로 보겠다.”며 인구 감소와 지역 활력 저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행정 운영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출마예정자는 개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저항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변화에는 반드시 불편이 따르지만, 그 불편은 특정 개인이 아니라 오래된 구조와 비효율을 향한 것”이라며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또한 군정 운영

의 핵심 원칙으로 ‘기록과 공개’를 제시했다. 그는 “군정의 주요 과정과 결정은 군민 앞에 투명하게 드러나야 한다”며 “행정의 힘은 비밀이 아니라 신뢰에서 나온다”고 밝혔다.

한 출마예정자는 “성과를 자랑하는 군수가 아니라 미래의 방향을 설계하고 책임지는 관리자가 되겠다.”며 “진안을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군수가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진안은 지금 변화와 정체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다음 세대가 살아갈 수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군민과 함께 변화의 길을 선택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출마예정자는 향후 정책 발표를 통해 지역경영 중심의 행정 혁신 방안을 단계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 무주군, 소규모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

무주군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구조적 안전 확보와 입주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전문 안전 점검기관을 통해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한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건축·구조 등 주요 시설을 점검할 예정이다. 노후화로 인한 균열·누수·외벽 탈

락 등 위험 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신청은 오는 27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주거복지팀(063-320-2772)으로 문의하면 된다.

/무주=손송기 기자

## 장수군, 상반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추진

장수군은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불법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농가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을 소각하지 않고 파쇄지원단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파쇄 작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것은 물론 파쇄된 부산물을 퇴비로 재활용함으로써 자원순환을 통한 친환경 순환농업 실천에도 기여하고 있다.

사업 신청은 3월 5일까지 상반기 사업 기간 동안 상시 접수하며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군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및 각 읍·면 농업인상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파쇄지원단은 읍·면별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농가를 방문해 파쇄 작업



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파쇄화상병 우려가 있거나 잔가지 직경이 파쇄 가능 기준(500원 동전크기)을 초과할 경우 작업이 제한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농업인은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잔가지 파쇄기를 무상 임대해 자가 파쇄를 해야 한다.

파쇄 대상은 사과·포도 등 과수 전정가지와 고추, 깨, 콩 등 발작물 부산물이며 원활한 작업을 위해 신청 농가는 파쇄 전 노끈, 비닐 등 불순물 제거 등 사전 정리 작업이 필요하다.

/장수=고관호 기자

## 제38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개최

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 2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382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이종삼 의원은 “백용성 조사 생가와 동화마을을 잇는 ‘역사·문화·생태 관광벨트’ 조성 제안”의 5분 발언을 통해 “백용성 조사 생가와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동화마을을 연결하여, 장수군을 대표하는 역사·문화·생태 관광 벨트로 육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김남수 의원은 “장계면 상가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의 5분 발언을 통해 “우리 군 북부권 경제의 거점이자 불류의 요충지였던 장계면 상권의 급격한 침체와 상가 공실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행정의 대응을 촉구한다”고 했다.

장수군수가 제출한 ‘2026년도 2차 수시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4건의



안건과 유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수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정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수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총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했다.

또한, 2026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면서 대표위원에 이종삼 의원을 선임하고 위원으로는 한국회 의원을 비롯해 민간위원 5명을 선임했으며, 김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권 중심 반도체 클러스터 정책 패키지 및 새만금 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의결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장수군, ‘산림소득 지원사업’ 추가 접수 나선다

장수군은 임업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26년 산림소득지원사업’을 추가 접수한다.

추가 접수는 2차 접수 이후 미신청 임업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일부터 3월 6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장수군에 사업 대상지가 있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립가, 신지식농업인(임업 분야), 생

산자단체로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경우 등이다.

지원 사업은 △토양개량제 지원 △저온저장고 등 유통기반 조성 지원 △산양삼 생산품질검사비 지원 등이다.

최종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면 총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지역 소식통

### 진안군 치매안심센터-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 협약

진안군 치매안심센터(센터장 문민수)는 23일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 백운홀에서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을 치매극복선도단체로 지정하고, 치매안심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 김창현 원장과 진안군 치매안심센터 문민수 센터장(보건소장)을 비롯해 치매 관련 공무원 및 산림치유원 직원 등 27명이 참석해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을 함께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은 앞으로 치매 인식개선 홍보 활동과 치매극복 봉사단 참여 등 다양한 치매 극복 프로그램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1학기 장학생 선발

(재)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이사장 황인홍)이 지역 발전을 선도할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2026년도 1학기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선발 인원은 진학·특기·반디 장학금 3개 분야 66명으로, 총 5억2,73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될 계획이다.

‘진학장학금’은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에게 1인당 30만원을 지급한다. ‘특기장학금’은 예술·체육·기능 분야의 국제 및 전국 규모 대회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초등학생에게 50만원, 중·고등학생에게 60만원을 각각지원한다.

대학생을 위한 ‘반디장학금’은 학기당 10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무주군 지역 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10년 이내인 재학생이 대상이다.

2026년 3월 3일 기준, 보호자 중 1명과 해당 학생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모두 무주군 내에 있어야 하며, 오는 3월 3일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무주군평생교육원)이나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무주=손송기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